

# 33년 부동의 1위... 현대중, 대형엔진 '2억 마력' 달성 쾌거

**울산 본사에서 2억마력 달성 기념식**  
 쏘나타급 중형차 125만대 출력효과  
 친환경 메탄올·디젤 이중연료 엔진  
 머스크의 1.6만톤 급 컨선에 탑재  
 대형엔진 세계 점유율 36% 달해



현대중공업이 22일 울산광역시 본사 엔진조립공장에서 '대형엔진 생산 2억마력 달성 기념식'을 열었다. 7만 4720 마력급 선박용 대형엔진 '8G95ME-LGIM'의 모습. /현대중공업

HD현대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대형엔진(2-Stroke) '2억 마력'을 달성했다. 대형엔진 생산 누계 2억 마력 돌파는 현대중공업이 1979년 첫 대형엔진을 생산한 지 44년 만의 쾌거다.

22일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 엔진조립공장에서 '대형엔진 생산 2억 마력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7만 4720 마력급 선박용 대형엔진 '8G95ME-LGIM'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대형엔진 생산 누계 2억 6만 6277 마력 달성을 기념했다고 밝혔다. 2억 마력은 쏘나타급 중형차 약 125만 대가 내는 출력과 같다.

2억 마력을 달성한 엔진은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올과 디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올 이중연료(Dual-Fuel)' 엔진이다. 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메탄올 연료공급시스템(LFSS)이 장착된 해당 엔진은 세계 최초 초대형 메탄올 추진선인 머스크(Maersk)의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될 예정이다.

◆ '엔진'으로 조선업 미래 내다본 현대중  
 빠른 조선사업 시장 판단 덕분에 현재의 현대중공업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심장인 엔진을 자체 제작해야 한다고 보고 1976년 엔진 사업에 착수했다. 1978년 당시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90만 마력의 대형엔진공장을 준공했다.

현대중공업은 1979년 9380마력급 엔진 1호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며 세계

엔진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92년 1천만 마력, 2005년 5천만 마력에 이어 2010년 9월 세계 최초로 1억 마력 고지에 올랐다. 현대중공업 측은 "2억 마력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형엔진을 생산한 메이커보다 8천만 마력 이상 많은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1989년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기준 대형엔진 세계 시장 점유율은 36%다. 새로 발주되는 선박 10척 중 약 4척에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이 탑재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엔진시장에서 높은 점유

율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꼽았다. 현대중공업은 2001년 세계 최초로 전자제어 대형엔진을 제작했고, 2007년 세계 최대인 10만 8920 마력급 엔진을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등 수많은 세계 최초·최대의 기록을 만들어 왔다.

◆ '친환경 엔진'과 '선박용 중형엔진' 시장 선도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엔진 개발을 선도하며 탄소중립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이중연료 엔진 패키지'를 개발했으며, 2015년 메탄올 연료 대형엔진 1호기를 만든데 이어 이번에 세계 최초 초대형 메탄올 엔진도

제작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대형엔진의 60% 이상이 LNG, LPG, 메탄올, 에탄 등 친환경 연료 엔진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에는 LNG·수소 혼소(混燒)엔진 실증에 성공하며 수소 연료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암모니아 연료 엔진 등 차세대 연료 엔진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중형엔진(4-Stroke)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올리며 1위 기업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00년 8월, 10년의 연구 끝에 독자 기술로 개발한 '힘센엔진'은 보수적인 엔진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뚫고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부터 해외 업체의 라이선스 제품 대신 중형엔진의 100%를 힘센엔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생산 누계 1만 대를 달성했다.

한주석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대표는 "현대중공업은 지난 40여 년간 고품질 엔진 제작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술력을 강화해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반포자이 보유세 1386만원 → 882만원... 2년전 수준

(전용 84㎡)

국토부, 올 공시가격 18.61% 하락  
 부동산값 하락·공시가 현실화 영향

아크로리버파크 84.97㎡ 공시가격  
 26억6700만원 → 24억7700만원  
 보유세 25.51% 내린 1078만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1%로 역대 최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3년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8.61% 떨어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급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 → 69.0%)으로 낮춘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 영향도 받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부동산

### 고가·준고가주택 보유세 변화

단지명·위치	전용면적	보유세변화(원)	변동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2022년 1386만 2023년 882만	-36.33%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97㎡	1477만 1078만	-25.5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	1456만 830만	-42.95%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61㎡	1050만 438만	-58.21%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	412만 252만	-38.70%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84.89㎡	598만 435만	-27.19%

자료/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고가주택인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6억500만원으로 보유세를 약 1386만원 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도 882만원 가량으로 하락했다. 작년 대비 36.33% 낮아진 가격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84.97㎡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26억6700만원에서 올해 24억7700만원으로 하락했고, 보유세도 같은 기간 약 1447만원에서 25.51% 낮아진 1078만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래미안퍼스티지' 84.93㎡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6억7600만원으로 3개 단지 중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21억8000만원으로 가장 낮아졌다. 보유세 역시 약 1456만원에서 830만원으로 가장 크게(-42.95%) 떨어졌다.

서울지역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82.61㎡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22억66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5억1700만원으로 대폭 떨어졌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약 1050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절반 넘게(-58.21%) 하락했다.

이러한 고가단지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수준보다 보유세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자이 -20.22% ▲아크로리버파크 -20.67% ▲래미안퍼스티지 -35.03% ▲잠실주공5단지 -47.60% 등 각 단지의 보유세는 모두 최소 20% 이상 떨어졌다.

서울 지역 내에서 준고가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78㎡는 보유세가 지난해 약 412만원에서 올해 252만원으로 38.70% 떨어졌고, 이촌동 '한가람' 84.89㎡ 보유세는 약 598만원에서 435만원으로 27.19% 하락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역시 2020년 보

유세(343만원)와 비교해도 26.44% 가량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의 경우 2020년보다 5.03% 정도 보유세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단지별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이지만, 실제 올해 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5%였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내달 중으로 더욱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췄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0%로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회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의지만 있을 뿐 가액비율을 다시 회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직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80%로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

>> 1면 '부동산 공시가격'서 계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

## "올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3.9% 감소"

올해 건강보험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또한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서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 4000만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된다.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져 그만큼 수급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